

<서평>

## ***A Handbook on 1-2 Kings vol.I, & vol. II***

(Roger L. Omanson and John E. Ellingt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8)

정중호\*

### 1. 머리말

본서는 성경번역자들을 돕기 위해 출간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핸드북 시리즈(UBS Handbook Series) 가운데 열왕기상·하를 해석한 책으로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서의 저자는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의 저자이기도 한 로저 오만손(Roger L. Omanson)과, 아프리카 언어를 연구하며 콩고/자이레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언어학자인 존 엘링턴(John E. Ellington)이다.<sup>1)</sup> 오만손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핸드북 시리즈(UBS Handbook Series) 가운데 사무엘상·하, 에스더, 고린도후서 등을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서평은 우선 책의 구조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서가 공헌한 점들을 간추려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 본서가 보완할 점, 해석상 문제점, 연대기 등에 관해서 비평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2. 본서의 구조

본서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상 제1권은 열왕기상을, 제2권은 열왕기하를 해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두 권의 목차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며 면수도 연속으로 되어 있다.

제1권은 비교적 짧은 서문으로 시작된다. 일반 해석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자, 텍스트, 내용 등에 관해서 아주 짧막하게 언급하고 장·절 구분에 관해

---

\*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구약학.

1) Roge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An Adaptation of Bruce M. Metzger's Textual Commentary for the Needs of Translators*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2006)

서, 열왕기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차이 문제 등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바로 번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서문은 열왕기상·하를 번역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주고 있다(1-16면). 그러나 이 서문은 책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장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목차를 보면 열왕기상·하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1부 통일왕국(왕상 1:1-11:43), 제2부 분열왕국(왕상 12:1-왕하 17:41), 제3부 유다왕국 (왕하 18:1-25:30) 등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전체를 두 권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제2권은 제2부 F 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큰 해석단위보다 작은 해석단위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왕권 쟁취를 다룬 열왕기상 2:13-46을 1. 아도니야의 죽음(왕상 2:13-25), 2. 아비아달의 축출과 요압의 죽음(왕상 2:26-35), 3. 시므이의 죽음(왕상 2:36-46) 등으로 나누었다.

큰 해석단위가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단위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뒤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기초 해석단위인 작은 해석단위를 시작할 때는 제목과 더불어 RSV와 GNT의 본문을 모두 싣고 있는데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좌우에 나란히 싣고 있다. 이 때 GNT의 제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 기초 해석단위의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할 뿐이다.

그러나 기초 해석단위에서 반드시 설명하는 것은 해석단위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RSV에서는 “아도니야의 죽음(The death of Adonijah; 1 Kgs 2:13-25)”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는 아도니야가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정적 숙청: 살해된 아도니야(Solomon gets rid of his enemies: murder of Adonijah; 1 Kgs 2:13-25)”라는 제목을 추천한다고 하였다(76면).<sup>2)</sup>

실제 해석에 들어가는 부분은 각 절마다 해석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때도 해당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싣고 있다. 물론 RSV와 GNT의 본문을 좌우에 배치하는 형식이다. 주로 단어와 짧은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저자가 그 절을 사역하여 모델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책의 부록으로는 A. 히브리 달력, B. 왕들의 이름 등을 첨부하고 있고, 참고문헌과 중요한 단어 해설 부분, 색인 등을 싣고 있다. 본서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1권 690면, 제2권 730면, 총 1420면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처럼 본서를 참고한 면수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괄호 안에 넣어 간략하게 표시할 것이다

### 3. 번역 원칙에 대해서

번역자에게 있어서 저본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본서의 저자는 서문에서 번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네 가지 정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7면); (1) MT 혹은 LXX 가운데 한 종류를 택해서 번역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는 MT를 택해서 번역하고 MT와 다른 본문이 나타날 경우 각주를 달아 소개하였다(NJSPV). (2) 해석단위 마다 MT를 택할지 LXX를 택할지를 결정해서 저본으로 삼는 방식이다. (3) MT를 기본 텍스트로 정하는데 만일 LXX나 다른 사본이 이와는 다를 때 학자들의 결정에 따라 MT본문을 수정하여 번역하는 방식이다. 현대의 많은 번역본들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특정 저본을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고대의 텍스트를 결정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번역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에서 취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러한 여러 방식을 소개하면서 저자들이 원하는 방식은 3번과 4번의 방식을 혼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즉 학자들의 주장보다는 MT를 더 중요시 여기고, MT와 LXX가 다를 경우 현대 번역본 가운데는 LXX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나 저자는 HOTTP의 마지막 보고서인 CTAT의 주장을 존중하여 MT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다.<sup>3)</sup> 왜냐하면 LXX는 번역자의 판단에 따른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추측되기 때문이라 하였다(8면).

그리고 여러 다른 번역본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 때는 (1) 해석의 차이에 따라 번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2) MT를 저본으로 할 때와 LXX를 저본으로 할 때 번역본들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가, (3) 특정 번역본에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등을 보여 주기 위해 다양한 번역본들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학자의 주장을 따를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본서의 저자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번역자 자신이 책임 있게 진정성 있는 본문을 찾아내고 결정하며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다(2면).

### 4. 본서의 공헌

본서의 서평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현재 아시아 오지에서 전문 번역선교

3) CTAT는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의 약어로서 HOTTP(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의 마지막 보고서이다

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선교사에게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핸드북 시리즈(UBS Handbook Series)를 현지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선교사는 이 시리즈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장해 놓고 거의 매일 참고한다고 하였다. 이 시리즈가 현지 번역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해석서임을 알 수 있었다.

왜 번역자들이 이 시리즈를 선호할까? 본서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본서의 저자들은 이 책들을 번역자들을 위한 특수한 책으로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주석서들에서 볼 수 있는 문학비평이나 지역과 시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이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저자가 염두에 두는 것은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본문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 책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지식이 미숙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번역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위해 저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BHS 제4판을 저본으로 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해석단위 마다 영어번역본인 RSV와 GNT를 제시하여 쉽게 본문을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저자가 각 절을 상세하게 해석하였는데, 번역자가 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단어 해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번역자가 각 단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하였으며 간략하게 요약만 간추려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본서의 최대 장점이요 크게 공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각주는 서문에 한 번 나타날 뿐 책 전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반드시 소개할 책이 있으면 본문에서 괄호로 간단히 처리하였다 따라서 논쟁점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특정 학자들도 소개하지 않았다. 단순히 ‘학자들은’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소개할 뿐이다.

아마도 본서의 저자가 무척 고심하며 노력한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번역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안내서가 되었다고 보지만 무리한 점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5. 비평적 고찰

본서가 성경 번역자들을 위한 특수한 해석서로 공헌한 바가 많지만 번역자들에게 더 나은 해석서를 제공해주기 위해 몇 가지 문제점과 보완점 그리고 비평적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5.1. 번역자의 히브리어(아람어) 활용 능력

본서의 저자는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번역자의 히브리어(아람어) 활용능력을 낮게 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꼭 필요한 경우 음역으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물론 오지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번역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쉽게 번역자를 안내하려는 배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번역의 경우는 원문인 히브리어(아람어)를 피해갈 방도는 없다.

또한 저자의 이러한 선입견은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명과 지명을 음역할 때 무슨 발음을 따라야 하는가? 원칙은 히브리어(아람어)의 음역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영어식 발음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본서의 저자는 번역자가 RSV를 거의 히브리어 성경(MT)과 동등하게 인정해 줄 것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Hebrew/RSV’라는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369면).

한국의 경우를 보자. 모세는 히브리어(מֹשֶׁה)보다 LXX(Μωϋση)를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사야의 경우도 히브리어(יְשַׁעְיָהוּ)보다 LXX(Ἰσαΐα)를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히브리어 발음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 것은 약간 실망스럽지만 모세를 모지즈(Moses)라고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했거나 예수(Ἰησοῦ)를 지저스(Jesus)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만약 그렇게 번역했다면 한국 성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또한 번역은 기본적으로 본문비평을 해야 그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아람어) 활용 능력이 낮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 점을 본서의 저자가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본문비평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자의 태도는 번역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본문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번역자가 책임성있게 진정성있는 본문을 찾아내고 결정하며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번역자를 도와 번역자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여 번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를 한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선택의 여지를 준다면 주로 영어번역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즉 MT를 수정할 때 본문비평상 이렇게 결정한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번역본을 망라하면서 이 가운데 한 번역본을 택한다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열왕기하 23:33의 경우 ‘난외주윳기(케레)’를 따라 번역한다고 하면서 이 ‘읽기’가 LXX와 콰란사본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은 언급은 하지 않고 어떤 번역

본들이 이 읽기를 따르는 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1315면). 본문비평의 결과를 제시하면 번역자로 하여금 본문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바벨론 왕의 이름이 MT에는 브로닥 발라단(בְּרֹדַח בַּלְדַּאן)으로 되어 있다(왕하 20:12). 본서의 저자는 본문의 증거로 볼 때 ‘브로닥’이 더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CTAT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프로닥 발라단’으로 번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브로닥 발라단’은 잘 알려진 ‘프로닥 발라단’의 변형이며, 평행기사가 실린 이사야 39:1과 예레미야 50:2에서 ‘프로닥 발라단’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번역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본문을 변경할 때는 본문비평상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LXX에 프로닥 발라단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LXX 만으로 MT를 수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다. 그리고 왕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을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철자를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MT의 의도를 따라 ‘브로닥 발라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될 것이다

물론 본서의 저자는 번역자의 히브리어(아람어) 활용 능력이 아주 낮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과연 번역자의 히브리어(아람어) 활용 능력이 낮다는 전제가 타당한가? 물론 오지에서 번역하는 선교사의 경우 히브리어(아람어)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정규 신학수업이나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한 선교사라면 그리고 번역을 시도하는 전문선교사라면 기초적인 히브리어(아람어) 활용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문에서 밝혔듯이 본서의 저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많은 번역자들을 위해 본서를 저술한다고 언급하였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오히려 영어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히브리어로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번역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본서의 저자는 히브리어(아람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사용하여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번역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했다.

특히 아쉬운 점은 참고문헌은 있으나 각주가 없다는 점이다. 각주는 서론에 한 번 나타날 뿐이다. 너무 방대한 분량이 될까봐 의도적으로 각주 처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번역을 위한 참고자료는 분명히 많이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번역자도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번역판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핸드북 시리즈(UBS Handbook Series)만 펼쳐두고 번역하고 있다고 짐작하는 것은 번역자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

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번역자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번역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번역을 진행시키고 있다

## 5.2. 왕의 명칭과 본문 수정의 문제

왕의 명칭에 관해서 본서의 저자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즉 본서에는 부록 B에 왕의 이름에 관한 특별부록(Who's Who among the Kings)이 첨부되어 있다(1369-1378면). 왜냐하면 동일한 왕에 대해 여러 가지 명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동일한 왕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여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 나타나는 왕의 명칭을 모두 망라하고 분석 정리하였다. 즉 왕의 명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칭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Hebrew/RSV'를 수정해야 할 때는 밑줄을 그어 표기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대문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그런데 왕의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열왕기하 15:1의 경우, '아사랴'라는 왕의 이름을 저자는 GNT의 번역을 예로 들면서 '웃시야'로 변경하여 번역하기를 추천하고 있다(1062면). 아마도 구약을 해석해보면 이 두 명칭이 동일한 왕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저자는 성경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두 명칭이 동일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번역하도록 추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역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번역은 본문비평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 본문비평상 문제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해석의 결과로 본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석의 결과를 반영해서 본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살펴보면 MT와 LXX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등 여러 중요한 저본과 번역본에서 동일하게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다. 본문을 변경할 근거를 본문비평상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저자는 해석에 의해서 동일한 인물이라 추정하면서 변경을 추천한 것이다. 만일 '아사랴'를 '웃시야'로 변경시켜 번역한다면 그것은 번역자의 월권행위이며 명백한 오류가 된다. 또 해석상에도 문제가 있다.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사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약에는 '아사랴'라는 명칭(왕하 15:1, 6, 7, 17, 23, 27)과 '웃시야'라는 명칭(왕하 13:30, 32, 34; 15:13; 대하 26-27장; 사 1:1, 6:1)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빈도를 살펴보면 웃시야라는 이름이 여러 책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이 명칭들이 동일한 왕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래서 번역자들은 이 명칭을 웃시야로 통일하려는 유혹을 받게된다 그러나 아사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구약의 저자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왕의 명칭을 선택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한 왕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명칭이 붙여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왕명이라면 여디디야는 어릴 때의 이름인 것이대삼하 12:25). 아마도 아사라는 본명이며 웃시야는 왕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구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왕의 이름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을 번역자가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분명 번역자의 오류다 이것이 직역을 할 것이냐 혹은 의역을 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가? RSV의 경우는 직역이기에 아사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고 GNT의 경우는 의역이니 웃시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구약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서의 저자는 번역자가 MT를 바탕으로 의역보다는 직역을 해주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번역하도록 인도하면서도 이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번역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요람’과 ‘여호람’의 경우도 아주 혼란스러운 경우이다. 이스라엘 왕(851-840년)과 유다 왕(852-841년)이 거의 동시대에 두 가지의 이름 즉 ‘요람’과 ‘여호람’으로 똑같이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여러 다른 번역과 마찬가지로 유다 왕은 ‘여호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요람’으로 번역하기를 권하고 있다(707면). 그러나 MT와 사본에는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본문을 변경할 수 있는가? 오히려 동시대에 한 인물이 남북 두 왕국을 동시에 통치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가? 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는데 번역자가 본문의 근거도 없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람’으로 유다 왕을 ‘여호람’으로 번역하도록 권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 5.3. 어떤 의미를 선택해서 번역할 것인가?

고대 히브리어 단어는 숫자가 많지 않았고 한 단어로 여러 종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번역자는 소위 넓은 ‘의미장(semantic field)’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가운데 적절한 의미를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John Strange, “Joram, King of Israel and Judah”, *VT* 25 (1975), 191-201; J. M. Miller and J.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2n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320-323; 정중호, 『이스라엘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62-164.



נער(나아르)와 ילד(엘레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벨엘로 올라가는 도중에 נער와 ילד로 표현되는 인물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조롱할 때 엘리사가 그들을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 결과 암콤폴 두 마리가 나와서 그들 가운데 42명을 찢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왕하 2:23-24).

본서의 저자도 이 단어들의 넓은 의미장을 보여주면서(왕상 14:3, 448면), RSV의 번역대로 ‘small boys’와 ‘boys’로 번역하기를 권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를 넘어서는 청년을 가리키는 ‘young m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충고하고 있다(731면).

그런데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한결같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개역개정』도 이 단어들을 ‘작은 아이들’과 ‘아이들’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다니!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 단어의 넓은 의미장 가운데 어떤 의미를 선택해서 번역하는가에 따라 표현과 메시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נער(나아르)는 주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예를 들면 이미 성인이 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이 단어로 부르고 있으며(왕하 5:20), 솔로몬 왕 아래서 감독관의 역할을 한 여로보암을 이 단어로 부르고 있다(왕상 11:28). 또한 ילד(엘레드)는 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젊은 청년을 가리킬 때도 있다. 르호보암 왕이 41세에 왕위에 올랐는데(왕상 14:21) 그 즈음 그와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성장한 젊은 신하들을 가리켜 이 단어로 표현하였다(왕상 12:8, 10). 따라서 이 두 단어 모두 어린이로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며 특히 신하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엘리사를 조롱하는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조롱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이 담긴 것이기에 엘리사가 그토록 격분하여 그들을 저주하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저주를 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통적으로 제사장과 예언자의 모습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다. 제사장도 삭발을 금하고 있으며(레 21:5) 예언자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평민까지도 삭발을 금하였다(신 14:1).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왕하 1:8)으로 알려졌으며, 거룩한 사람으로 알려진 나실인의 특징도 칼을 대지 않은 긴 머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엘리사의 대머리는 자연적인 대머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엘리사의 머리

가 긴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뜻에서 ‘대머리’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 ‘대머리’라는 표현은 예언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뜻으로 ‘사기꾼’ 혹은 ‘가짜 예언자’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라’라는 조롱은 “떠나가라, 사라져라, 꺼져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롱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가짜 예언자야 꺼져라! 사기꾼아 꺼져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조롱은 엘리사 뿐 만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상황이라면 **נַעַר**와 **נָוֵר**의 여러 의미 가운데 ‘젊은이’라는 의미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상황이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의 성인들이 엘리사와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기적을 행하며 명성을 높여가는 엘리사를 시기하여 적대감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가 ‘young m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하는 것은 적절한 안내라 볼 수 없다. 번역할 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번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 5.4. 연대기 문제

연대기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을 해석하면서 서두에 잠깐 언급을 하고 있다(444-445면).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연대기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여러 번역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대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번역자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성있게 연대기를 제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소제목을 제시할 때 부분적인 연대기를 제시하든지 책의 부록으로 연대기를 제시하든지 연대기를 제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서사전을 참조하도록 참고문헌을 소개한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소제목에도 연대기를 제시하지 않고 부록으로도 종합적인 연대기를 제시하지 않는다. 불과 1-2면만 할애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앗수르와 바벨론 연대기를 대조하여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본서의 저자는 어떤 종합적인 연대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 왕들의 통치기간을 가끔 알려주고 있다. 이 연대기는 브라이트(J. Bright)의 연대기도 아니고 헤이스(J. H. Hayes)의 연대기도 아니다. 때로는 NJB의 연대기를 제시할 뿐 자신의 연대기가 무슨 종류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5) 정중호, 『열왕기하』, 성서주석 1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97-98.

(445면).

본서는 종합적인 연대기를 제공하지 않고 각 왕의 통치기간을 그때 그때 알려 줄 뿐이다. 문제는 단편적인 통치 연대만 제시하기 때문에 전체 연대기상에는 상호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간을 783-743년이라 밝히면서(1056, 1062면), 그 다음 왕인 스가라의 통치 연대를 747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1062면).

아주 심각한 것은 번역본에 나타나는 연대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아하스 왕의 통치 연도를 두 종류 제시해 주면서 선택하라는 것이다(1091면). 호세아 왕의 경우도 두 종류의 통치 연도가 여러 번역본에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1107면). 웃시야 왕의 경우도 “781-740년 혹은 783-742년”이라고만 이야기하고 결론을 알려주지 않는다(1062면). 다른 곳에서는 다양한 영어번역본들을 제시하면서 각기 다른 통치 연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 번역자가 과연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종합적인 연대기가 없이 한 왕의 통치 연도를 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통치 연도를 선택할 때 번역본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 종류의 종합적인 연대기를 비교하여 선택하고 때로는 보완하는 것이지 번역본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연대기 문제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성경 해석자나 번역자 모두 함께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번역자를 멀리 떼어 놓는 것이 과연 번역자를 도우는 일일까 오히려 번역자들이 혼란을 경험하고 번역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 베가의 경우 MT에는 “유다 왕 아사라 오십 이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십년을 치리하였다(왕하 15:27)로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나타나는 왕들의 통치기간을 합산해보면 베가가 도저히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연대기를 작성하여 베가의 정확한 통치기간과 연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서의 저자도 이 점을 번역자들에게 알렸다 즉 여러 성서학자들이 아수르의 기록을 바탕으로 베가의 통치 연대를 주전 736-732년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번역자는 MT를 따라 ‘20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신중한 판단이고 올바른 판단이라 본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해석을 해서 본문을 변경시키고(왕하 15:1의 ‘아사라’와 ‘웃시야’ 경우) 어떤 경우는 해석이 명확하게 다르고 나타나는 경우에도 MT본문을 고수하라고 지도할 때 번역자로서는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아주 아쉬운 부분은 베가의 통치 연대가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는데 구약의 저자가 20년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번역자는 과연 MT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날 것이고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베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요단강 동편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왕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었다.<sup>6)</sup> 베가는 시리아 왕 르신과 손을 잡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요단강 동편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왕으로서 행세하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토를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을 합산하면 거의 20년 동안 베가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MT를 따라야 한다고 지도하는 것은 번역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기 힘든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 된다.

연대기와 관련되는 내용 가운데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열왕기하 18-20장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부분이다. 분명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은 사건과 바벨론 사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은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보다 앞선 사건인데 열왕기하에서는 이 사건들을 뒷 부분인 20장에 배치하고 있다.

이 사항은 중요한 문제인데 본서의 저자는 이 부분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 우선 열왕기가 역사적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번역자를 도우는 일일 것이다.

열왕기상·하와 같이 역사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 종합적인 연대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자에게 지도와 시계를 주지 않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으로 그리고 어떤 시각에 진격하라는 명령과 비슷하다. 그만큼 종합적인 연대기는 성서 번역자에게 중요하다.

## 5.5. 달력 체계

연대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달력 체계에 관한 것이다. 이 점을 의식해서 본서의 저자는 부록에 달력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본서의 저자는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달력체계를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사회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봄철인 니산에 시작되는 달력체계는 종교력이고 가을철인 티스리에 시작되는 달력체계는 사회력이라 하였다(1368면). 그런데 이

6) J. H. Hayes and P. K. Hooker,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新年代記』, 정중호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1), 18.

리한 설명을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설명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데 종교력과 사회력을 구분해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스라엘의 달력체계는 고대부터 티스리에서 시작되는 달력체계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요시아 왕 때 국제적인 교류를 의식해서 니산으로 시작되는 달력체제로 변경한 것이다.<sup>7)</sup> 이렇게 공식적으로 달력체계가 변경되었음에도 실제로는 두 가지 달력체계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현상이 또한 일어났다. 마치 우리가 양력 설날을 지키며 시무식을 거행하지만, 음력 설날을 더 성대한 명절로 지키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즉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사용하듯이 이스라엘에서도 두 가지의 달력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달력체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들여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같은 해에 두 왕이 통치하는 듯한 표현이 있다. 이스라엘 왕 므나헴(746-737년)과 브가히야(737-736년)의 통치 연대를 제시하면서 737년을 두 왕에게 모두 속하도록 제시하였다. 물론 가을에 대관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달력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현대의 달력체계보다 이스라엘의 달력체계에 따라 어느 해가 어느 왕에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왕하 25:8)같은 경우 현대의 달력이 아니라 고대의 달력상 5월 7일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대 달력의 다섯째 달이면 압달로서 현대의 7/8월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날이 유다의 중요한 명절, 즉 예루살렘 함락일을 회상하며 슬퍼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명절에 대한 설명은 명절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1367-1368년)에도 빠져 있고 본문해설 부분(왕하 25:8)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아쉬운 대목이다.

## 5.6. 특수 용어 번역과 번역 모델의 문제점

‘내시(נִסִּי, 사리스)’는 성기가 거세된 남성으로 궁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구약에는 여러 곳에서 이 명칭이 나타나는데 고위관리를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상전인 시위대장 보디발을 가리켜 ‘내시’라 부르고 있다(창 39:1). 또한 국방장관격인 관리를 가리켜 ‘내시’라 부르고(왕하 25:19), 이스라엘 궁전의 고위관리를 가리켜 ‘내시’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왕상 22:9). 원래 내시는 왕의 측근으로 왕의 신임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

7)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달력체계와 제의력”, 『사회과학논총』 27/1 (2008), 84-87; J. H. Hayes and P. K. Hooker,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新年代記』, 108-109.

데는 실제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도 있었다. 그러나 후대에는 실제 거세된 남성이 아니면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관리를 ‘내시’라 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내시’라는 명칭이 실제 거세된 남성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고위관리의 관직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서의 저자는 환관장 즉 내시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지닌 ‘랍사리스’를 ‘대신(high-ranking officer)’로 번역하기를 권하며, ‘술잔을 맡은 관원장’이라는 뜻을 지닌 ‘랍사게’의 경우는 다른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역의 경우를 보여준다(1163면). 그리고 ‘다르단’을 ‘군대사령관(the chief of all soldiers)’으로 번역하기를 권한다(1162면).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열왕기하 18:17 전체를 새롭게 번역하여 번역의 모델로 제시할 때는 이상하게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랍사리스는 정승(chief officer)으로, 랍사게를 야전사령관(field commander)으로, 다르단을 총사령관(supreme commander)으로 번역한다. 또한 19절의 경우 다른 곳에서는 랍사게를 ‘정승’이라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앗수르 관리 중 한 사람’이라 번역하고 있다. 번역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번역 모델로 제시한 번역이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1166면).

또한 번역의 모델로 제시한 번역이 종종 아주 과격적일 때가 있다. ‘세탁자의 밭’(왕하 118:17)이라는 구절을 ‘의류제조 상점들’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과격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1164면).

번역의 모델로 제시한 번역들은 상당 부분 의역이며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변경시킨 경우도 있다(왕하 18:20, 27, 31, 34, 35). 특히 직접적인 말을 간접적인 대화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왕기하 18:29-30의 번역 모델을 제시한 경우는 문장을 축소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할 것을 권한 경우이다(1175면). 물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할 경우 이러한 번역도 가능하다는 예시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해석상의 오류로 인한 오역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 6. 맺음말

본서는 번역자들을 위해 저술된 특수한 해석서 시리즈인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핸드북 시리즈(UBS Handbook Series) 가운데 열왕기상·하를 해석한 저서로 많은 번역자들이 애용하는 저서이다. 본서는 번역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어려운 점

들을 구절구절마다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주는 친절한 해석서라 할 수 있다. 또한 본서는 아프리카 현지 번역자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현장의 상황을 감안한 번역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이 또한 발견된다. 여러 학문적인 논쟁점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일반적인 해석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내용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연대기와 달력체계에 대한 설명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연대기를 제시해 주어야 번역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번역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일 것이다. 즉 자신이 번역한 것이 히브리어(아람어) 성경에 충실히 근거하고 있는 번역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번역하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비평을 통해 본문을 확정하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는 번역자들의 히브리어(아람어) 활용능력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 이러한 설명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Hebrew/RSV’라고 표기하면서 영어번역본 특히 RSV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여러 번역본들을 대조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일견 이러한 안내가 번역자들의 번역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번역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번역자들의 확신을 감소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번역자들이 많다. 오히려 히브리어를 제시하면 간단히 이해될 것을 영어로 장황하게 설명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아람어)를 적절히 활용하고 본문비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번역본들을 대조시키는 것보다 훨씬 번역자들의 확신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해석상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고민을 축소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면서 번역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본서가 포용하기에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면 참고자료로 소개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자들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도 다양한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본서에 각주가 거의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해당 논쟁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아 다양한 자료들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서에 대한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다. 구절구절 번역 문제에 치중하다보니 각 해석단위별로 흐르는 특수한 흐름을 짚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다. 물론 간

략한 내용 소개는 있지만 해석상의 큰 흐름을 맛보게 해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할 경우 해석단위별로 흐르는 특수한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번역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간략하게 개별적인 흐름을 요약하면서 안내하는 노력이 첨가된다면 본서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열왕기상·하, 번역, 연대기, 본문비평, 해석.

1-2 Kings, translation, chronology, Textual Criticism, Interpretation.

(투고 일자: 2009. 8. 20, 심사 일자: 2009. 9. 2, 게재 확정 일자: 2009. 9. 2.)



<Abstract>

**Book Review-*A Handbook on 1-2 Kings vol.I, & vol. II***

(Roger L. Omanson and John E. Ellingt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8)

Prof. Joong Ho Chong  
(Keimyung University)

These handbooks, two volumes, are part of a series designed to help translators who know English, especially those who do not speak English as their first language. The UBS handbook series is intended to be read by translators who have only a limited knowledge of the biblical languages, Hebrew and Greek.

These handbooks on 1-2 Kings are divided into 3 parts. In these parts, small basic interpretation units provide the main structure. For each unit, the authors discuss the text verse by verse. Each unit begins with two translations, the *RSV* as a literal translation and *GNT*, as a somewhat freer translation. These translations are provided side by side. The authors sometimes provide their own translations as a model of possible renderings. The authors try to provide a simple translation which is easy to understand.

The authors recommend that translators follow the advice of the final report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of HOTTP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Although they prefer the “earliest attested text”, they usually recommend that translators follow MT rather than an amended form of the text reconstructed by biblical scholars.

Translators sometimes doubt their decisions. In this case information of textual criticism and original biblical languages will be helpful for them. Although the authors believe that translators have only a limited knowledge of the biblical languages, most of the translators are using computers and learned Hebrew in seminaries. So the authors should provide more informations about the text, MT, especially to those who do not speak English as their first language.

In interpreting 1-2 Kings, the entire chronology and calender are essential. However the authors provide only individual information about each king's rule.

This may leave translators confused regarding some periods. For example, after Jeroboam II(783-743 B.C.) Zechariah, the next king began in 747 B.C.(p. 1062).

Handbooks can not provide everything. However translators still need more information. I think a better way would be to provide footnotes or endnotes to help them. There are many ways to get articles and e-books through the internet.

These handbooks can help many translators who begin their mission to put God's Word into the many languages. If I mention one more issue, the best way to help translators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various resources that will enable them to decide for themselves.